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

2011 vol. 22 09+10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통과된 날... ‘도가니’를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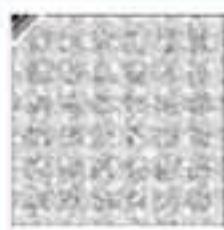
9월 27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통과되는 순간 그동안 애써온 위원회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직원들과 번개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를 신고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간단히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기로 한 것인지요. 의외로 규모가 큰 모임이 되어서 모두 17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신고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보자고 했지만 사실 영화를 보는 마음은 복잡하였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든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영화를 본 후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개인적인 삶이 철저히 망가졌다고 호소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직원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적이거나 부당한 처신들을 보고 같은 공무원이지만 충격을 받았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연고주의로 똘똘 뭉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려면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용기를 내어 신고한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이든 외부 신고자이든 그 일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주어야 한다는데는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 가운데가 주저앉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런 가을밤이었습니다.

희망공감



기획특집

04 Special

「공익신고자 보호법」 전면 시행

08 ACRC Issue

청탁등록시스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든다

12 Global Issue I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중앙아시아 국가에 전수

14 Global Issue II

한국의 행정심판제도, 세계 속으로

16 국민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보조금의 '반환명령'

18 국민에 의한

KTV 현장출동 '국민속으로~', 〈국민권익〉과 함께

20 국민을 위한

옥천군의 숨통이 트이다

24 지켜줘요! 국민권익!

인천 남동구 신규아파트 입주민 고충 해결!

26 오피니언

'TV 신문고'를 통해 '사랑과 정의가 꽂 피는 사회'를!

행복누림

28 우리 문화

기와 위에 앉은 남도의 문화 – 영암 구림마을

32 문화지킴이

춤추는 필묵, 그 틈에 살아나는 예술 _ 서예가 국당 조성주

36 법과 권익

천재지변? 인재? – 상황에 따른 피해 보상 방법

38 건강한 삶

다름을 존중하라

40 카메라에 비친 풍경

산사의 추억을 따라 옛길을 거닐다 '오대산'

44 포커스 온

싱글맘승진백서 〈에린 브로코비치〉

46 또 다른 세상

나는 네가 웹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생각 조종자들〉

48 ACRC News

50 편집 후기

발행일 2011년 10월 18일(격월간, 통권 22호, 비매품)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우경종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전화 02 360 2761 팩스 02 360 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디자인 /인쇄 (주)성우애드컴 02 890 0904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imonthly Magazine of ACRC

09 + 10

2011 vol.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전면 시행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민간영역의 공익침해 행위 신고 기반 마련

그동안 공공분야의 부패행위와 달리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의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이를 알고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공익신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한 경쟁 등 민간영역의 부패행위로부터 공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30일 서대문구 통일로 권의위 청사 1층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익침해신고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김영란 권의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했다.



(왼쪽부터) 오준근 행정심판 부위원장, 백운현 부패방지 부위원장,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김대식 부위원장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방패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난 2009년, 미국에서는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용감한 영업직원의 이야기가 뉴스를 탔다. 비리가 적발된 회사는 미국의 화이자사. 이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오고 있었다. 다행히 이를 눈치챈 내부 영업직원이 미 법원에 신고해 해당 회사는 약 2조 6,0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그 직원의 용기도 놀랍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내부직원 고발을 가능케한 미국의 법이다. 미국은 1986년부터 부정청구법 (False Claims Act)을 시행해 왔다. 이 법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보상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30일부터 이러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기업의 부정행위 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준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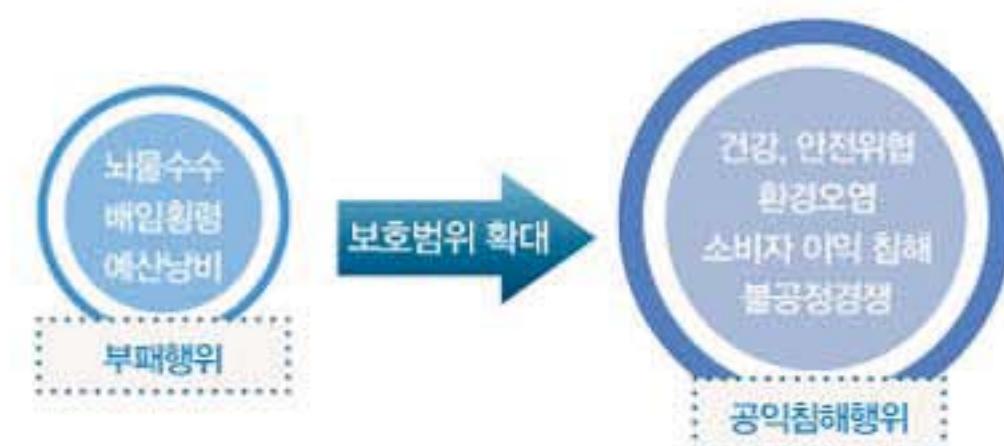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부패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 개념과 범위가 조금 다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패행위의 개념을 '공직자의 법령위반행위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신고한 이만 보호할 뿐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 이외에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한 예로 지하갱도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회사를 퇴직한 직원이 신고하여 행정기관이 그 사실까지 밝혀낸 적이 있다. 그런데 회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색출하여 협박하는 보복행위가 발생했었다. 또 2006년에는 중국산 참기름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참기름 제조업자 5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사람이 소송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결국 오히려 그가 참기름 제조업체로부터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되고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당해야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에 치명적인 '공익침해행위'는 공직자의 부패만큼 사회 안전에 위협적이다. 또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르는 일이다. 유해식품의 제조와 유통은 당장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은 우리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위해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각국의 신고자 보호 사례

〈표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위협행위를 신고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보호·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침해신고센터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김영란 위원장

를 연구해 왔다. 그간 이미 세 차례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무엇보다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로 ‘건전한 내부고발자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가 선정된 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해 왔다. 그간의 노력은 올해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로 빛을 보았다.

정직한 사회,

안정된 국민의 삶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 되길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곳곳에서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다. 이를 모두 적발하기란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기관과 시민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앞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로운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폐기물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용기를 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다면 그는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을 보장받고 불이익 당하지 않게 국가가 보호한다. 또 금전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있다.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선 공익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형벌 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준다. 단, 허위신고와 부정신고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고내용이 설령 신고자의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는 우리 사회 조직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과거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가 업무상 조직의 비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알더라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 조직에 대한 의리라고 여겼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보복행위를 당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만약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으로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 규정의 효력을 없애게 된다.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비공식적 · 사전적 · 사후적 보복 행위 등으로부터 신고자를 최대한 보호한다. 또 ‘신고자 색출’,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물론 신고자에게 신분적 ·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신고로 인해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경우 이를 원상복귀 시켜준다. 같은 맥락에서,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림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용하라!



〈그림 2〉 공익침해행위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업인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내용이 그 요지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벌인다면 이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오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그리고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업들은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그러한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면 ‘정직’과 ‘신뢰’의 이미지를 구축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최근 회자되는 ‘공생발전’, ‘상생

정신’,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뜻을 같이 한다. 우리 사회는 변화했으며 기업과 시민, 국가과 국민이 함께 발전하는 시대에 도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합리적인 룰, 그것이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입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했습니다.

마지막 준비작업을 하는 도중 문득 대산 정약용의 일화가 떠올라 찾이했습니다.

“官所以不明者 (관소이 불명자)

民工於謨身 不以漠犯官也 (민공이 모신 불이 막범관아)

如汝者 官當以千金買之也 (여이자 관당이 천금 매기야)

관이 헌명해지지 않는 까닭은

민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미를 부리고

관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같은 사람을 관이 천금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는 대산 정약용이 곡산군수로 부임해 갈 때 수배중이던 농민 174명이 배성을 병들게 하는 12가지 조항이라는 글을 들고 나와서 자수하자 무죄로 석방되었던 일입니다. 이전처럼 자리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공익신고자를 보호·보상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법을 내다본 말씀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관련 김영란 위원장 메모 中-

청탁등록시스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든다

- 악화된 '청탁'의 의미, 되돌리겠습니다!

공직사회 비리사건의 시작은 어딜까? 바로 청탁이다. 정확하게는 '부정한 청탁'이 그것이다.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비리,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사건 등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의 대부분이 '부정한 청탁'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탓일까? '원고청탁', '강연청탁' 등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던 '청탁'이 어느 순간 부정적인 단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잘못된 '청탁' 문화를 깨고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회복하기 위한 권익위의 노력이다.

〈〈연도별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도 추이〉〉





알선·청탁, 왜 하는가?

〈권익위 설문결과 : 공직자 1000명, 일반국민 1000명 대상〉



* 알선·청탁을 하는 주요 이유로 공직자와 일반국민 모두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서(각각 60.4%, 57.6%)'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불법·부당행위 무마를 위해서(46.8%)'와 '안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32.1%)'도 다수 응답

청탁을 등록해야 한다니, 아니 왜?

청탁을 등록해야 하는 현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청탁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청탁자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 '청탁등록시스템'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기본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장한 시스템이다.

청탁등록시스템에 의해 이제 모든 공직자는 본인이 청탁을 받게 되면 소속기관 내부전산프로그램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기록하는 것은 청탁하는 이 그리고 청탁 받는 공직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부정부패의 사전예방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청탁등록시스템을 살펴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청탁 자료를 등록하면 1차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 감사부서는 해당 청탁의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소위 위험요소를 판단하게 되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탁이

발생하면 공직자 스스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또 시스템에 청탁을 등록하면 그 자체로 '청탁거절'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호한 청탁의 경우에도 선량한 공직자가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에 심리적 부담을 가져 자연히 부당한 청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공직자는 올바른 판단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현행법상 청탁행위로 처벌을 받으려면 '부정한 청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청탁', '뇌물 또는 금품의 수수나 요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청탁'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탁등록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청탁' 그 자체에 대해 우

리스스로 심판을 할 수 있게 된다. 형사법에 적용되는 청탁의 범위보다 더 확대해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부패 사전 예방 효과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청탁' 자체를 없앤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청탁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기 보다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시스템을 통해 검증받는다는 것이 '청탁등록시스템'의 핵심이다.

즉 공직자마다의 개인차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일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또한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기관이 국민 1000명과 공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을 설문했는데,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공직사회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에 관계없이 부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그 원인을 '학연과 지연 등 연고주의 사회 풍토'라고 말했다. 다른 설문에는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공직사회 알선청탁 문제가 얼마나 큰지, 또 청탁이 부패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였다. 이 연결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은 마련된 것이다.

알선청탁, 어떻게 물리칠까?

바로 이렇게!

청탁자(A) : 거기 있으면서 그런 힘도 없어?

공직자(B) : 응, 없어. 미안해. 요즘은 훈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청탁자(A) : 알고 보니 꽉 막혔네.

공직자(B) : 그래 공무원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알선청탁 근절 방안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공직자를 위한 알선청탁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명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라고 나와 있다. 또한 업무상 거절이 아주 어려운 경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며 업무 처리 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어 '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말해야 한다.

또 해줄 수 없는 일을 부탁해 오면 최근 부패행위로 구속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것도 인식시켜야 한다.

청탁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매뉴얼에 있다. 반드시 사무실에서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했을 때는 가급적 동료와 함께하고, 비용은 각자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뉴얼은 '참고'일 뿐이다.

진정 청탁을 끊고 부정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본인이 평소 소신을 갖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원인행위자

〈연도별 CPI점수 및 순위〉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중앙아시아 국가에 전수

- 우즈베키스탄 고위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실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권익위를 방문하였다. 한국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요청이 중앙아시아 국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반부패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을 알리고, 세계에 '청렴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익위의 모습을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에 반부패 연수를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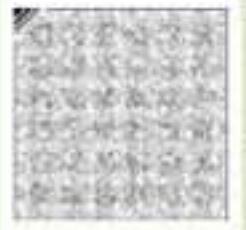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우즈베키스탄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반부패 연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부패방지 조치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UZBT65)'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반부패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실시중이다. 이번 연수는 금번 프로젝트의 수행주체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측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연수 대상국가로 한국을 선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반부패 연수를 요청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수석차관 까니야조프 예세무라트(Kanyazov Esemurat) 및 대법원 부원장 라흐마노프 쉐

랄리(Rakhmanov Sherli), 내무부 부패방지국장 라흐모노프 샤프코트(Rakhmonov Shavkat) 등 고위급 공무원 5명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중앙아시아사무소의 프로젝트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하였다.

부패방지를 위한 한국의 제도 및 경험 전수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은 8월 1일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 환영식에서 "부패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부패문제 해결과 행정 효율성 증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부패방지 활동과 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반부패 제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은 권익위로부터



01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국민권익과 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서울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특강을 했다.

02 백운현 부위원장이 '알선·청탁 근절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이 범국민적인 노력으로 알선·청탁을 근절해야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체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행동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私的)
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구
축해야 한다.

만약 그런데도 뇌물 등을 받는 일이 생겼
다면?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알선청탁 근절 방안 매뉴얼'에는 숙지하라고 나와 있다.
우선 공직자는 뇌물 고발 절차와 방법, 부패신고로 인한 보복 발
생 시 자신의 보호 절차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을 상황에 놓였을 때 동료들이
목격하도록 노력하고 상황 그대로를 기록해 두는 것을 잊지 말아
야한다고 강조한다.

뇌물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정중하게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뇌물 제공의 원인과 상대방
의 신원을 파악해 기록해 두는 것도 좋다.
가족, 동료 등이 뇌물을 받는 상황이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게 관건이다.

“청탁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기보다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시스템을 통해 검증받는다는 것이 ‘청탁등록
시스템’의 핵심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예방' 이전에 공직자 그리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청탁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적임을 깨달아야한다. 청
탁은 공정성을 해치고 기회균등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또 심각하
게 법치를 훼손하는 부패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청탁등록시스
템은 이러한 인식 전환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U z b e k i s t a n



01 김대식 부위원장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수석 차관 일행은 지난 8월 1일 서대문구 집무실에서 만나 한국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02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8월 1일 한국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연수차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수석 차관 일행에게 기념물을 전달하고 있다.

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행동강령 등 주요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패방지를 위한 한국의 제도 및 경험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노력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다양한 질문을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에서의 연수를 포함한 반부패 프로젝트를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사회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반부패 액션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수 단들은 권익위 뿐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대법원, 대검찰청 등 부패방지 관련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반부패 제도 및 주요 활동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흥사단 등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에도 방문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

권익위는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몽골 등과의 반부패 협력 MOU체결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측에서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높게 평가하여, 금번 반부패 연수 실시를 요청하는 등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및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연수가 우즈베키스탄의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부패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중앙 아시아국가에까지 확대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심판제도, 세계 속으로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제화에 팔 걷고 나서



권익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행정심판제도를 아시아 각국은 물론 서구 각국에도 알리고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주에서 있었던 국민권익위의 활동을 소개한다.

A U S t r a l i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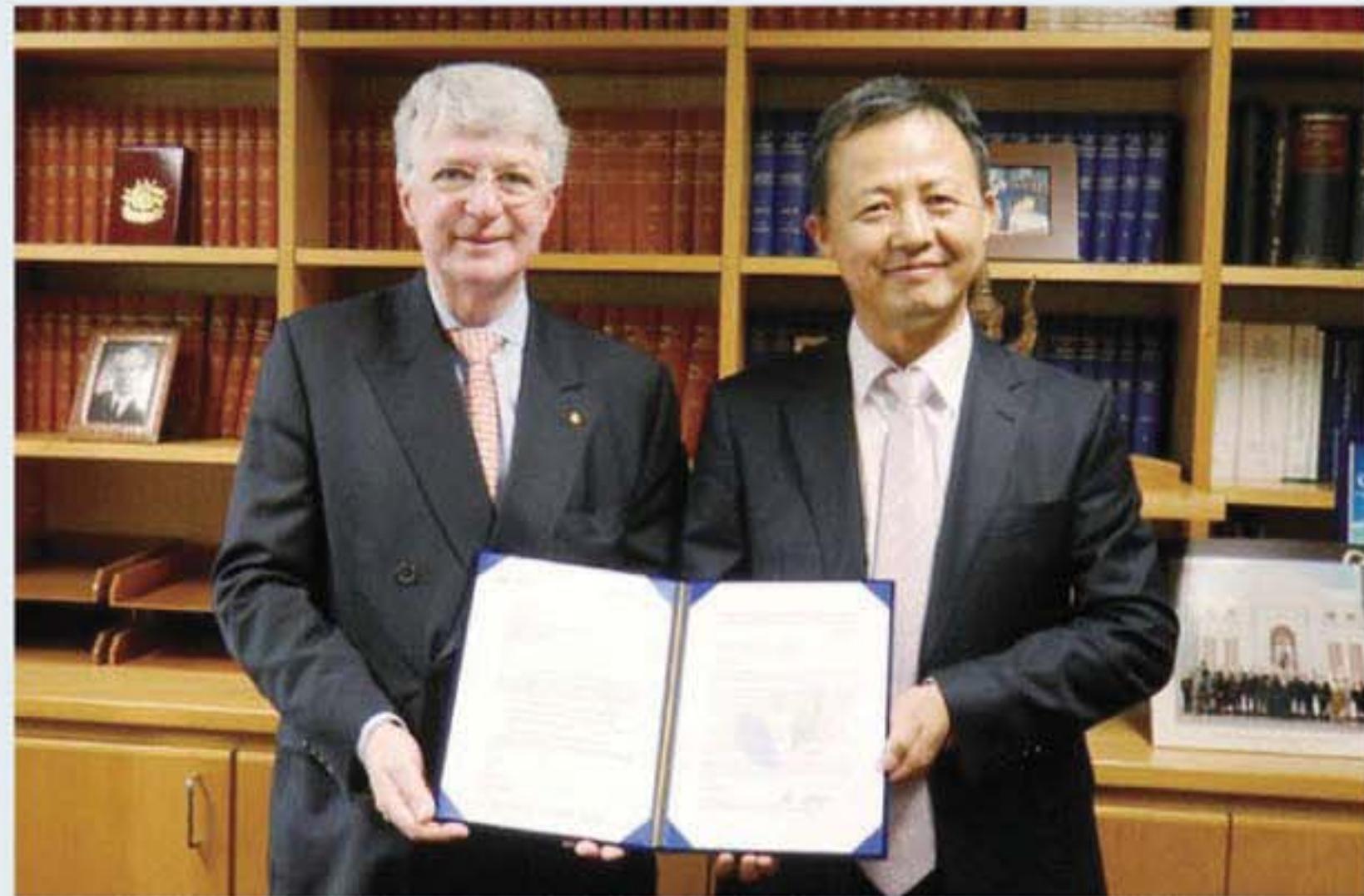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행정심판으로!

오준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임)은 취임 이후 외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특히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는 3박 5일 일정으로 호주의 심판기관들을 방문해 행정심판 국제화 시대의 막을 올렸다.

방문 첫날인 9월 5일 첫 방문지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 행정심판위원회였다. 이어서 오후에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비슷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호주 연방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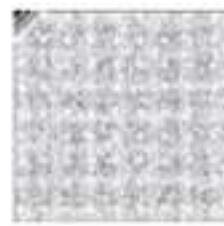
방문 둘째 날인 9월 6일에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수도 민사·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행정심판 외에도 소액의 민사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독특한 형태의 특별심판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형태의 심판기관이다. 마지막 날인 9월 7일에는 뉴사우스 웨일즈 옴부즈만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권익위의 고충처리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3박 5일의 빠듯하고 짧은 여정 동안 권익위는 호주의 대표적인 심판기관들에 한국 행정심판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



오준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9월 5일 호주 연방행정심판위원회(AAT)를 방문하여 Garry Downes 위원장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신을 교환하고 있다.

류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심판기관을 설치하고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호주의 심판제도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방문결과들을 국민권익 보호와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행정심판의 세계화를 위한 교류보로 삼아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OPE EMPATHY

희망공감

국민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민에 의한

KTV 현장출동 '국민속으로~', 〈국민권익〉과 함께

국민을 위한

옥천군의 숨통을 트이다

지켜줘요! 국민권익!

인천 남동구 신규아파트 입주민 고충 해결!

오피니언

"TV 신문고"를 통해 '사랑과 정의가 꽃 피는 사회'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보조금의 ‘반환명령’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행심’이라 함)은 피청구인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청구인 ○○여성개발인력센터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4월 청구인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후 관리비인가 프로그램 운영비인가

청구인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도부터 시행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의 수탁기관인 ‘새일센터’로 지정받은 후, 노동부가 마련한 이 사건 사업의 운영 지침(이하 ‘사업지침’이라 함)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2009년 7월경 승인받은 후 보조금지급결정에 따라 보조금 총 6,100만원을 지원받고 집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0년 10월경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취업박람회 개최비가 사업지침에서 정해놓은 지급항목과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집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에게 지급했던 보조금 6,100만원 중 700만원을 반환하도록 통지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지침상 보조금의 지급항목(지급기준)은 ①상담원 인건비(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 ②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③취업 후 사후관리비(상담, 취업알선, 훈련 프로그램 등을 마친 구직희망자에 지속적인 취업지도와 취업자의 계속근로를 위한 방문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로 분류되어 각 지급항목별로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지침에 따라 취업박람회 개최비용을 ‘취업 후 사후관리비’로 편성하여 집



행하였어야 함에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해 집행했으므로 이것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취업박람회 개최비용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볼 것인지, ‘취업 후 사후 관리비’로 볼 것인지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며 취업박람회 개최비용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한 사업계획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동 사업비를 집행했음에도 피청구인이 동 사업비를 반환하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승인 당시 담당자의 과실로 사업계획이 잘못 승인되었으므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보조금법 위반 사실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조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중행심은 청구인이 사업지침에 어긋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사업지침에 어긋난 편성이라면 그렇게 편성된 사업비(보조금)의 집행이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사업지침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지침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점, 사업지침의 근거에 해당하는 보조금법 제2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다른 용도’의 판단기준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법령체계 전반적으로 그 위임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지침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에 불과하며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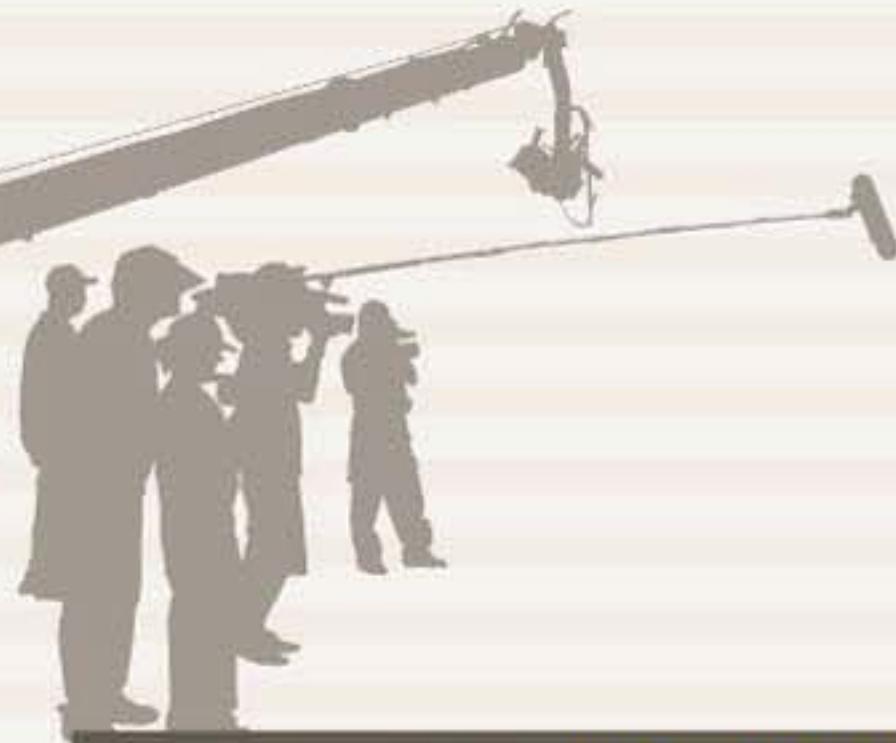
또한, 중행심이 사업지침에 기재된 지급기준을 살펴본 결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순 동어반복적 문구로 설시되어 있어 ‘집단상담 프로

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 후 사후관리비’의 경우 구직희망자에 대한 취업지도와 취업자의 계속 근무를 위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시되어 있어 순수하게 취업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로 보기에는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계획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보조금 지급결정을 거쳐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행사비로 집행하였는데, 중행심에서는 지침의 법적 성격과 그 지급기준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보조금 지급결정이 보조금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청구인의 보조금 집행 역시 이 사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집행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중행심은 동 재결을 통해 단순히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보조금이 지급된 당초의 목적과 취지, 사업지침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목적 외 사용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 재결은 향후에도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보조사업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KTV 현장출동 '국민속으로~', <국민권익>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K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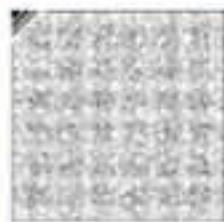
밤과 낮을 잊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힘쓰는 KTV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권익위가 그리는 세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 마을의 민원 현장 방문, 인터넷 민원인과의 상담도 그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정부기관의 모습을 궁금해 하고 또 기대한다. KTV는 '현장출동! 국민속으로~'를 통해 그 모습을 담고 있다. 권익위와 함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우리 국민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함께 하자.

권익위가 그리는 세상, KTV가 담는다

"죽겠어요. 직접 물건을 끌고 비탈로 내려가려면…… 차가 좀 택시라도 잘 들어오든가 해야지, 원" "차 소리 나서 얼른 문 열어보면, 못 간다고 그러는 게 대부분이고 아주 불편하죠." "차뿐이겠어요.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공사를 안 하니 보기도 그래요." 속초시의 한 마을, 카메라가 다가가자 주민들은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보탠다. 이곳은 30년 넘게 방치된 좁은 길로 불편한 이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곳이다. 도시 계획은 정해졌지만 5년 전에야 예산이 집행됐고, 그나마 공사도 다 완료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이들은 권익위 그리고 KTV를 보자 그간 쌓여던 일들이 많은 듯, 말문을 열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고충과 불만을 해결해주는 권익위. 그런 권익위가 민원 현장을 방문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다. 반면 현장을 떠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다’다. 물론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곳 속초의 시민들도… 왜일까? 그들의 억울함, 그리고 제일 큰 불만이 바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길이 좁다고 민원을 내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민원을 내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행정에 주민들의 마음고생만 깊어졌다.

고충민원신청을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고충 해결의 한 부분이다. 민원인이 다 못한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고,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 그래서 권익위 조사관들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민원인 곁으로 달려간다. 속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권익위의 모습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고충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보면서 같은 국민으로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KTV의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는 그 공감과 소통의 모습을 담기 위해 권익위와 함께 한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프로그램

권익위는 그간 정부의 정책과 공공정보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케이블과 위성,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며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해 온 KTV와 함께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를 준비했다.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각종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여줌으로써 그 방안을 국민들이 알게 하고, 권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 곳곳, 미처 살펴보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을 찾아내 정부와 소통을 꾀하는 방송이기도 하다. 그 만큼 애청자들의 관심도 높다. KTV 제작 담당자는 “제작하는 입장에서 권익위의 역할도 새삼 알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권익위의 역할을 정확히 알리는 노릇



01 KTV는 <정책대담>을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02 <현장출동! 국민속으로>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권익위의 노력을 담는 프로그램이다.

03 KTV 제작진들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방송으로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24시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렛츠 Go 신문 Go’ 코너는 회가 거듭 할 수록 민원인들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크게 얻고 있다. 그리고 해결과정을 보여주면서 ‘참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지난 7월 취임한 김관상 원장은 이러한 KTV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방송 기자로 일선에서 활동했던 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KTV가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내면 사회를 하나로 묶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말했다. 권익위와의 계속되는 협력도 물론이다. 최근 KTV는 이밖에도 토론, 취업관련 전문 프로그램은 물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해 미디어를 통한 세대간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진행과 패널, 방청객까지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캠퍼스 토론 – 청년, 通하라!’는 이미 대학생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장으로 통한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는 오전, 오후에 생방송 뉴스 시간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정부정책의 AS센터로 입지를 굳힌다. 권익위와 함께 국민의 희망 메신저 역할에 충실히 KTV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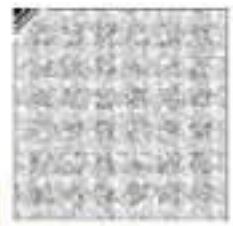
옥천군의 숨통이 트이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충북 옥천 지역 대표적 정체구간 이백삼거리. 그 주범은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의 좁은 통로박스다.

한때 주민들의 빠른 이동으로 사랑받았지만 이젠 옥천군의 숨통을 조이고 주민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간 흉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보다 못한 권익위가 주민들의 숙원인 통로박스 확장사업 조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꽉 막힌 옥천군의 숨통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의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철도 통로박스. 통행이 비교적 원활한 평일 정오에도 6~7대의 차량이 도로 진입을 위해 한참을 정체해 있었다.

“통로를 지나던 사람이 오토바이에 치여 죽기도 했어요.”

민원인 대표 류제구 씨가 통로박스를 가리키며 최근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얘기한다.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의 접속로인 두 통로박스는, 군북면의 환평리, 추소리, 이평리 등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군도 15호선과 연결된 폐고속도로가 대전, 옥천 간 통행로로 활용되면서 통로박스 이용 차량이 급증해 교통정체가 심해졌다. 통로박스가 일반인의 통행에 활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증가했다.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에서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로 오르는 길은 매우 가팔랐다. 비좁은 오르막길 바닥엔 차량파편도 떨어져 있었다.

“여기 보세요. 얼마 전에도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직도 차량파편이 있네요.”

류제구 씨가 가리킨 곳에 떨어져 있는 파편들이 좁은 통로박스로 인한 불편과 불상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강수량이 많은 여름엔 비만 오면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이로 인해 금년엔 차량통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겨울엔 두 통로박스를 잇는 경사길이 결빙되어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의 경우 폭 4.3m 높이 3.4m에 불과해 대형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차량통행이 계절과 기상여건, 차종에 크게 좌우되다 보니, 통로박스 이용자들은 6km나 되는 거리를 빙 둘러가기 일쑤라고. 게다가 대형차량들이 마을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낡고 협소한 통로박스 때문에 마을주민 500여명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 삼거리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민원현황을 듣고 있다.

주민들의 숨통을 확 트어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이런 주민들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철도 통로박스 확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기존 통로박스의 구조상 증축이 어려워 난색을 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옥천, 증약 간 확장공사(4차선→6차선)를 진행 할 당시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를 교량으로 바꾸어 주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통로박스를 존치하고 선형개량으로 인한 폐고속도로와 군도 15호선 연결도로 700m를 설치해 준 바 있어, 다시 통로박스를 확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 이기 어려웠다.

옥천군 건설교통과 신광호 주무관은 각 기관과 주민들이 자력으로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군북면 주민뿐 아니라 이 통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사실을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알았죠. 하지만 각 기관이 이 상황을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최선책을 모색하는 일은 저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민원인 대표 류제구씨는 주민 500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을 현지에서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 했다.

“현장을 방문해 실상을 보니 주민들의 호소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박스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로박스 확장 필요성에 대해 각 기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로박스 확장 및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이끄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피신청인인 옥천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01 옥천군 건설교통과 박대웅 도로팀장이 관계자들에게 경부선철도 통로박스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문제의 통로박스가 위치한 지점이다.

03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50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확장 민원을 제기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소재 통로박스를 둘러보고 있다.

04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충북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60여 년전 세워진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낡고 협소한 이백삼거리 소재 통로박스 확장 민원을 해결한 후 조정서를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03



01



02



04

한 마음으로 넓혀가는 옥천군의 밝은 미래

권익위의 조정 결과 철도시설공단은 폭 4.3m, 높이 3.4m의 통로박스를 폭 8m, 높이 4m로 확장하기로 했고, 공사비는 옥천군이 25%, 철도시설공단이 75% 부담하게 됐다. 또 도로공사는 기존 통로박스와 같은 규모의 폭 4.5m, 높이 4.5m의 통로박스를 추가 신설하기로 했으며, 옥천군이 부담하는 20억 원 외 나머지 공사비용은 모두 도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옥천군 건설교통과 박대용 도로팀장은 이번 조정 결과에 모두 만족하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힘쓴 권익위에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했다.

“보은군, 영동군, 대전시 등지로 이동하는 모든 차량들이 이 통로박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확장 공사는 이 지방 전체에 유익한 사업입니다. 민원을 잘 해결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류제구씨도 권익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권익위는 저희의 입장에 서서 이 일에 발 벗고 나서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권위의식 없이 저희 입장에서 얘길 들어 주고 공감해 주신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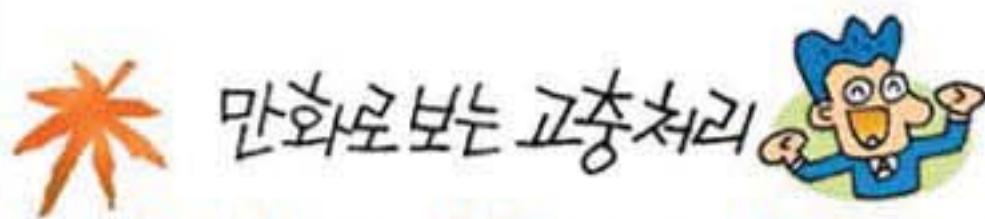
교통량 증가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주민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조정서의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권익위의 약속에 더욱 큰 힘을 얻은 모습이다. 이제 주민들의 숙원인 경부고속도로 및 철도 통로박스 개량사업 실시를 위한 초석은 놓였다. 남은 것은 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옥천군과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류.제.구. 민원인 미니 인터뷰

MINI INTERVIEW



좁은 통로박스 때문에 주민들의 고충이 심했습니다. 도로 공사, 철도시설공단에 통로박스를 확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어려움도 많았고 확장 조정 합의도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저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저희 대신 발 벗고 나서주셨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 이번 일을 위해 힘써주신 국민권익위원회와 김대식 부위원장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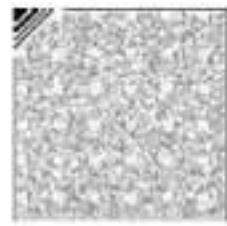


일러스트 유한석

인천 남동구 신규아파트 입주민 교통 해결!!

- 권익위, 민원인과 간담회 및 이동 신문고 운영 -







“TV 신문고”를 통해 ‘사랑과 정의가 꽂피는 사회’를!



●○ 권익, 참 어려운 말이다. 권익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 사전을 찾아봤다. ‘권리와 그 권리에 따르는 이익’ 이것이 권익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 권리에 따르는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를 극복한다면 ‘살만한 사회, 사랑과 정의가 꽂피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닐까?

●○ 누구나 그렇듯 나에게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때의 기억은 강렬하게 남아 있다. 입사 시험 중 면접을 볼 때였다. 면접관은 나에게 ‘왜 기자가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일반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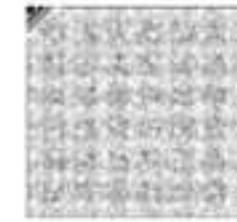
●○ “나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가 되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에게 더 강하고 가장 약한 사람보다도 더 약하고 싶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공권력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약자의 편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 약한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싶다고 다짐했었다. 그 이후 민주화가 되기 전에 일선 기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현장

을 뛰었다.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방송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1978년부터 1986년까지의 시기는 아직도 생각난다. 사회 전체의 권리인 민주화를 위해 역사의 현장에서 괴로워한 피와 땀들이 모아져서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지수도 이만큼 높아진 거라 생각한다.

●○ 권익을 위한 일은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다. 1981년에는 자폐증 어린이와 부모들의 아픔에 대해 뉴스를 통해 보도하기도 했다. 또 뉴스 파노라마 프로그램을 위해 ‘바다가 앓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한 적도 있다. 수출에 지장이 된다며 방송하지 못하게 했던 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수 없다. 그리고 일선 기자 시절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화상이 심한 자기 반 학생을 데리고 찾아온 적도 있다. 그 학생을 안고 방송한 뒤 적지 않은 성금이 들어왔고 한 병원에서 무료로 두 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다.

●○ 이러한 기억들 속에서 나는 ‘권익’을 본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하는 권리다. KTV원장으로서 ‘KTV 시청자인 국민들의 권리’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TV 신문고(1분용)”코너를 만든 뒤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살만한 사회, 사랑과 정의가 꽂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HAPPY ENJOYMENT

행복누림

우리 문화

기와 위에 앉은 남도의 문화 – 영암 구름마을

문화지킴이

춤추는 필묵, 그 틈에 살아나는 예술 _ 서예가 국당 조성주

법과 권리

천재지변? 인재? – 상황에 따른 피해 보상 방법

건강한 삶

다름을 존중하라

카메라에 비친 풍경

산사의 추억을 따라 옛길을 거닐다 '오대산'

포커스 온

싱글맘승진백서 〈에린 브로코비치〉

또 다른 세상

나는 네가 웹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생각 조종자들〉

ACRC News

편집 후기

기와 위에 앉은 남도의 문화

영암 구림마을



월출산 품안에 자리한 왕인학당. 구림마을은 한옥뿐 아니라 여러가지 전통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문화 관광자원이다.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월출산 자락 아래 펼쳐진 고즈넉한 한옥 마을은
도시에서는 만날 수 없는 여유로움과 고전 이야기를 한보따리 펼쳐 놓을 기세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에는 옛 역사의 흔적들이 숨어 있고 이야기가 뿌려 놓은 이정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그것만으로 여행의 시작은 충분히 흥미로워진다.



월출산 품안에 자리한 왕인학당. 1600년전 천자문과 논어 등 백제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 일본 아스카 문화를 꽂 피게 한 왕인박사의 위업을 드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개설했다. 21평의 전통 한옥에 문을 연 이 학당은 가훈 및 고사성어 써 주기, 탁본 찍어주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천자문, 논어, 명심보감, 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왕인학당은 구림마을과 도기문화센터, 천년고찰 도갑사 그리고 월출산 등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자원이다.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구림마을.

곳곳에 숨은 이야기 가득, 영암 구림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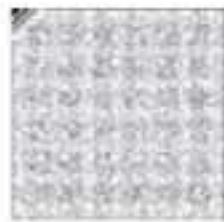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구전'이라고 말한다. 요즘 세상에서는 거짓말 같은 설화부터 역사를 바탕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까지, 그 종류와 가짓수는 전래동화 전집으로 만들어질 정도지만, 실제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들을 찾아 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권익> 9+10월호에서는 바로 그런 곳, 전라남도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이야기의 시작은 전라남도의 숨은 보석, 영암에서 시작된다. 그곳을 찾기 위해 얼마나 달렸을까? 조금은 단조로운 풍경들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가며 지루함이 밀려 올 때쯤 영암에 도착을 했다. 남도의 한적한 도로에서 만난 풍경들은 한가롭기 그지없고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기만 한 곳.

영산강의 줄기를 따라 한참을 달려 남해로 흘러가는 길목에서 만난 영암은 월출산이라는 그윽한 산자락을 품은 아늑한 곳이다. 지역 어느 곳에서나 병풍처럼 펼쳐진 월출산이 보일 정도로 나지막한 평야지대지만 그 은은한 풍경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남도를 지켜온 문화의 고장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삼한시대부터 2,200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구림마을은 영암의 문화와 문학, 전통을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행정구역상 영암군 군서면에 속한 구림마을은 자연 그대로의 촌락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가 으뜸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역사적 설화와 인물을 배출한 자연 그대로의 문화관광 자원이다.

구림마을로 떠나는 전통 여행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는 구림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오랜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옥을 꼽을 수 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기와로 덮은 한옥과 흙으로 빗어 만든 담벼락은 흙내음을 잊어가는 도시민들의 코끝을 아스라이 자극한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이곳저곳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바뀌어 있지만, 그 형태와 느낌만큼은 옛 건물들의 향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한옥에 대한 단순히 문화적 가치로서의 보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한옥에서의 체험을 통해 잊혀져간 우리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점은 구림마을만의 특징. 마을 전체가 하나의 민박촌처럼 형성되어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을에서 이뤄지는 전통혼례 체험이나 도기체험, 월출산 달맞이 공연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육적 체험의 가치가 높아 아이들에게도 인기. 단순한 가족 여행이 지루한 사람들이라면 구림마을로 떠나는 전통 여행을 적극 추천해 본다.

남도 문화를 주도해 온 영암

영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월출산이다. 매월당 김시습은 월출산을 보며 “남쪽 고을에 그림 같은 산이 있으니 달은 청천에서 오르지 않고 이 산에서 오르더라”며 그 감동을 글로 전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 일까? 영암은 삼한시대부터 남도의 문화를 주도해왔다. 월출산 주지봉을 주산으로 좌우 용마루에 안겨 있는 구림 마을은 장장 2200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다. 일본고대문화의 시조 왕인박사를 비롯해 풍수도참사상과 불교 중흥에 힘쓴 도선국사가 모두 구림마을 출신이다.

그래서 특히 손꼽히는 곳이 왕인박사 유적지. 구림마을 입구에 자리잡은 이곳은 월출산의 빼어난 풍경을 등에 지고 사람들을

맞이한다. 왕인박사 위패를 모신 왕인묘, 왕인박사를 상징하는 계곡 성천, 2.75m 높이의 왕인석상 및 전시실은 역사적, 교육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곳이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구림마을 일대 벚꽃길과 가을이면 월출산에 불타오르는 단풍은 또 하나의 백미.

역사적 이야기가 조금 지루해진다면 인근의 도기문화센터를 찾아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구림마을 인근에 위치한 10여개의 가마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설립한 영암 도기문화센터는 최근 공립박물관으로 승격되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잡아끈다. 조용한 마을 속에서 만들어 내는 도기의 향기를 잠시나마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짧은 페이지에 구림마을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역사적 배경 지식 또한 방대하기 이를 데 없기에, 구림마을을 제대로 느끼려면 기초적인 공부는 필수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말자. 머리 아픈 역사 공부는 미뤄둬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옛 한옥이 만들어 내는 작은 휴식만으로도 구림마을을 찾을 이유는 충분하니까. 나머지 전설과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마을 어른들이 전래동화처럼 던져주는 것에서부터 찾아보는 재미 또한 쏠쏠할 것이다.

‘월출산의 심묘함을 느끼는 누각’
이라는 뜻의 월약루



문화 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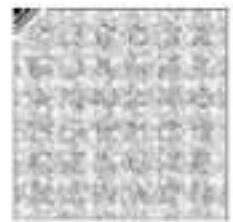
글 정라희 · 사진 하지영

춤추는 필묵, 그 틈에 살아나는 예술

서예가 국당

서예가 국당





커다란 붓을 든 그의 발걸음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중심을 지키면서 이어지고 있었다. 거침없이 이어지는 그의 몸짓은 어느새 춤사위가 되고, 손끝에서 솟아오르는 글자들은 어느덧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이처럼 국당 조성주의 행보는 여느 서예가들과는 조금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다. 너무도 낯설지만 그래서 더 친숙해진 서예의 재탄생. 그를 통해 우리는 서예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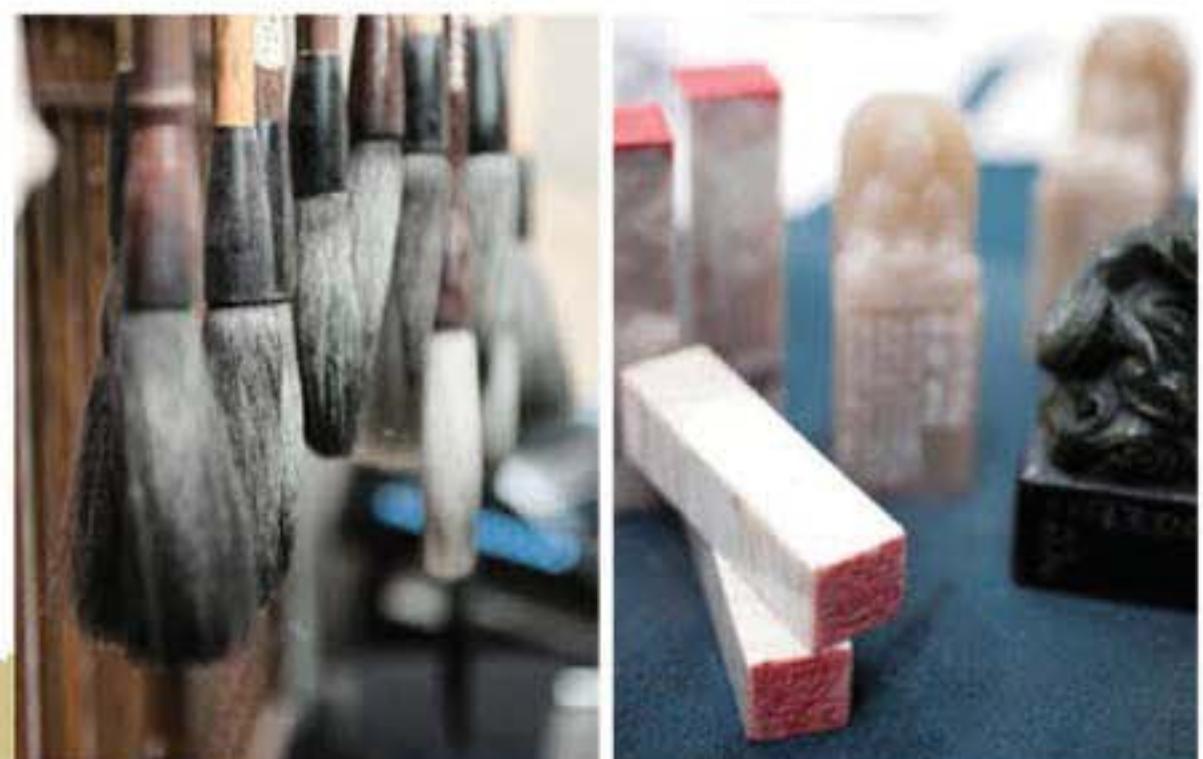
무대를 활보하는 서.예.가.

언젠가부터 서예는 ‘옛 것’의 무게를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불과 오래지 않은 과거에는 집집마다 서예 작품 하나쯤은 벽 한편에 걸려 있었고, 미술수업에는 서예가 필수과목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얀 화선지를 앞에 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써내려 간 한글자 한글자가 단어 그 이상의 의미로 승화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던 서예의 감동은 세월에 쓸려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커다란 붓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걸 듯 춤을 추듯 서예를 하는 이가 나타났다. 바로 국당 조성주다.

그가 서예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은 〈무한도전〉이라는 인기 TV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중계되었다. 그전부터 그는 독특한 예술을 하는 서예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더 많은 대중들이 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예 퍼포먼스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예가인 제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서예가 있습니다. 아직도 서예가들 중에는 서예 퍼포먼스에 대해 이질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저도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쇼’적인 의미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예 퍼포먼스를 통해 서예가 오늘날 재조명됐다는 사실에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의 서예 퍼포먼스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에도 도움이 됐다는 점이 마음에 남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상봉 디자이너의 옷에 새겨진 그의 글씨를 통해 영어 알파벳이 아닌 한글도 얼마든지 뛰어난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았던가.





01, 03 전통 서예가로 알려진 그의 또 다른 직업은 '전각 예술가'이다.
02 서예의 힘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시작한 대불휘호 퍼포먼스

찰나의 인생을 몇 배로 풍성하게 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예와 전각에 매료됐다는 그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며 독학으로 서예를 시작했다고 한다. 스승을 찾아 사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글씨 쓰기에 매달렸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스승을 만나게 됐지만, 그는 이론과 실기 모두를 아우르며 기초를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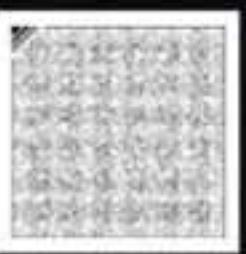
그럼에도 그는 서예가라는 타이틀에 얹매이지 않은 다양한 활동을 겸하고 있다. 글씨로 작품을 완성하는 전각도 그의 전공분야지만, 완전히 색다른 도전으로 여겨지는 활동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낸 음반이다. <궤적>이라는 앨범 명으로 내놓은 1집은 이후 <궤적2>로 이어졌다. 한국적 감성이 녹아있는 두 개의 정규 앨범과 달리, 크리스마스 캐롤을 모아 만든 캐롤 음반도 있다.

그는 스스로 자신 안에 잠재된 예능적 소질을 억누를 수 없다고 말한다. 비록 청년의 나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은 젊은이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그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만 하지. 무슨 일을 그렇게 계속 벌이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쁜 일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서예라는 바탕 위에서 새로음을 찾다

한편으로 그가 서예 퍼포먼스라는 이종장르를 선보이면서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서예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작품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1997년에 <금강경>을 완각해 한국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그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법화경>을 주제로 대형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 7만여 자나 되는 이 경전을 돌에 새기기 위해 그는 지난 5년 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각에 매달려왔다. 이런 그의 좌우명은 공자가 <논어>를 통해 설파한 ‘일이관지(一以貫之)’다.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것을 뛰뚫는다’는 이 말은 그의 활동이 언뜻 보기에는 별개의 것으로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보통의 기성세대들은 ‘한 우물을 파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심이 되는 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물을 보조해줄 수 있는 작은 우물들도 필요합니다. 대신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처럼 그의 열정에는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경계를 넘어 선 듯 보이는 그의 활약들도 기대를 하고 보게 된다. 그렇게 그는 섬세한 손에 미감을 담아, 묵직한 몸에 열정을 담아 또 하나의 글씨를 세상에 새기고 있다.



◎

개인전

1997년 예술의전당 서예관(전관)
1999년 부산 국제신문사전시관
2006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전관)

경력

1992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한국미술협회) 및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한국 전각학회 이사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이사 역임
1997년 금강경 5400 여자 완각 (전각 금강경)
1997년 한국 기네스기록 보유
2004년~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부분과위원장 역임
현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외래교수



글 이성우(법무법인 봄 변호사)

천재지변? 인재?

상황에 따른 피해 보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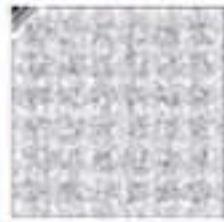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를 조사단이 '천재지변'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피해 주민들은 서울시나 서초구청 등의 예방책 미비나 대응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집중호우를 비롯한 천재지변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자.

'자차' 가입 여부 확인이 우선

우선 차량 침수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보상이 가능하며 침수된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면 손해보험사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차를 구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별약관의 보험 외에는 자연재해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사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보험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7년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가 덮쳐 사망한 관광객 가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집중 호우를 비롯한 자연재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관련 당사자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해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 즉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예방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여부가 좌우된다.

국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대상'

위와 같이 불가항력 여부가 다투어 지는 사례는 주로 도로, 항만 등의 기간 시설 내지 사인(私人) 관리 시설 등의 관리 부실과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피해자는 국가·공작물의 관리 시설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로, 사인의 관리시설의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자 내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2006년 강원도 영동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버스를 덮쳐 승객들이 다친 사고에 대해 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가 치료비를 지급한 뒤, 도로공사의 안전시설관리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법원은 ‘산사태 발생 당시 강우량 측정 장치가 고장 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도로공사 소유의 산비탈에는 시설기준에 맞는 배수로가 설치돼 있었다’며 ‘도로개설 후 8년간 안전사고 없이 관리된 데다 고속도로 모든 경사로 윗부분까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당시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하여 이를 관리하는 해당 군(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리 군이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53247)도 있다.

法은 안정성 결여여부 따라 판단

요컨대, 법원은 ‘도로, 관리시설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그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 배상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348)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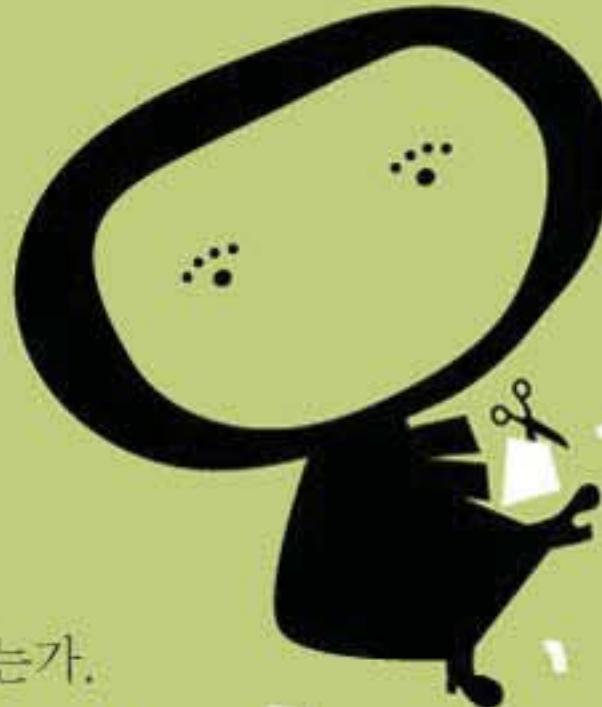
이전에는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여겨졌던 사례들이 현재에는 일부 자연재해가 경합되었다 하더라고 법원에 의해서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아열대 기후로 변한 우리나라 여름은 집중 호우가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대도 집중 호우를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유효한 항변이 아니지 않을까?

다.름.을 존중하라

남들과 내가 서로 다른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다른을 존중으로 대할 때 다른은
갈등이나 불화가 아니라 '특별함'과 '평화'를 만들어준다. '다름'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힘이며 상생과 평화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네 살짜리 쌍둥이 조카가 있다.
일란성 쌍둥이라서 엄마인 여동생조차
너무 구분이 안 되어 처음에는 유성 펜으로
발목에 점을 찍어 놓고 키웠다. 엄마가 그
정도이니 외삼촌인 나는 얼마나 헛갈리겠는가.
그런데 요즘 여동생을 만나면 '아이들이 서로 너무
달라'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제
얼굴만 조금 자세히 봐도 구분이 된다. 어디 그뿐이라. 입맛.
말투, 놀이방식 그리고 기질 등 온통 다른 것투성이다. 일란성
쌍둥이라서 유전자 배열도 같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무튼 조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모두 다르고 유일
무이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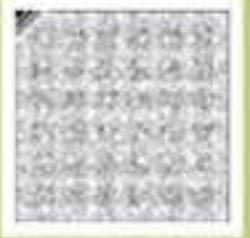


'다름'은 생명이 본능적으로 지향하는 것

다른 생명들은 어떨까? 박테리아나 버섯과 같은
미생물이나 균류들은 암수의 구분이 없다. 이들
은 분열이나 포자를 만들어 스스로가 새로운 개체
를 만들어낸다. 무성생식(無性生殖)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과 같은 즉,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만든다.

작이 필요 없기에 비교적 빨리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지만 문제는
동일한 유전자 형질을 가지고 있기에 환경이 바뀌면 전멸할
우려가 있다.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
을 가진 종이 오래 살아남는다고나 할까? 그렇기에 무성생식
을 하는 생명들도 유전자교환을 시도한다. 이를테면 박테리아
는 플라스미드라는 작은 유전자 조각을 교환함으로써 유전
자 변이를 시도한다. 암수의 구분이 있는 생명체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암수가 구분되어 유성생식을 하는 것 자체가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전멸을 방지하고 더 좋은 유전자로 발전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번식이란 단지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추구함으로써 더 오래 생존하고 더 우수한 유전자를 만들어내려는 생명체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명이 이렇게 다음을 지향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 1884년 아일랜드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엄청난 대기근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아일랜드에서는 그 해에 유전적으로 균일한 씨감자를 밭에 심게 했다. 생산성이 우수한 품종을 통해 더 많은 감자를 얻으려고 했던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상황은 의도와 정반대로 흘러갔다. 감자에게 치명적인 잎마름병이 창궐한 것이다. 결국 그 해의 감자는 수확되기도 전에 전멸해버렸다. 이는 다음을 부정하고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이유로 획일화를 추구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려면 다음을 인정하라

이렇듯 생물세계에서 '다름'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명체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필수적인 전략이 된다. 그렇다면 생명의 일환인 인간들의 삶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 똑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색깔을 만들어가면서 자신만의 유일성을 꽂 파우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자신의 독특함과 개별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접전 같아지려고 애를 쓴다. 취업을 앞두고 천편일률적인 스펙을 쌓아가는 대학생처럼 불안 때문에 남이 하는 대로 뒤 따라가게 된다. 뒤 쫓아가는 삶, 흉내 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안의 다음을 특별함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감추려 들거나 방치하게 된다. 자신의 개별성에 관심을 두지 않다보니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집단의 생각과 신념만을 고집하게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기는커녕 생각이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다음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 (同而不和)한다”라고 했다. 군자는 화합하되 남들에게 똑같아지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소인은 같은 점이 많아도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부동不同’이란 남에게 같아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남과 같아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 말에 우리가 겪고 있는 자기상실과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법이 담겨있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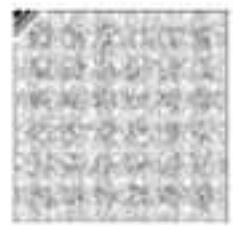
01

산사의 추억을 따라 옛길을 거닐다

오대산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 전,
산사로 떠나는 발걸음에 온통 자욱한 산안개가 마중을 나온다.
사박사박 밭에 차이는 고운 흙들은 나무들 사이에서 숨을 쉬고
멀리서 들려오는 불경소리가 산사의 시간을 대신하는 그곳.
호젓한 가을 공기에 잠시 몸을 맡긴다.

가을의 문턱에 다다르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등산이다. 여름내 푸르렀던 나무들이 울긋불긋 색동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는 10월은 등산을 떠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 나무들이 뽑어내는 산소 더미 속에서 몸을 맡기고 걷는 가벼운 트레킹부터 헐떡거리는 숨을 참아가며 정상에 오르는 거친 산행까지, 언제든지 자연 속에 파묻히는 시간은 즐겁기 마련이다. 하지만 주말 산행이라도 한번 떠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일상에 쫓겨 방안에 드러누워 TV라도 편하게 볼수 있는 주말은 도시민들에게는 꿀맛 같은 휴식이 아니던가. 그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떠나보자. 어디로? 바로 오대산으로~!



가을 산행 최고의 명소

강원도 평창군과 홍천군, 강릉시에 걸쳐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을 간직하고 있는 오대산은 가을 산행의 최고 명소다. 설악산과 더불어 태백산맥에 속하는 고산준령으로 높이 1,563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 등 걸출한 고봉들이 1년 내내 등산객들을 손짓한다.

오대산이라는 이름은 가운데 있는 중대(中臺)를 복판으로 하여 북대·남대·동대·서대가 오목하게 원을 그리고 있는 산의 형태에서 유래되었다. 그 형상이 다섯 개의 연꽃잎에 싸인 연심(蓮心) 같은 산세라 하여 붙여진 이름, 오대산. 그렇다면 오대산을 가을 산행에 최고 명산으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을 산행은 무엇보다 아침과 낮. 그리고 저녁의 기온차가 가장 극심한 때다. 같은 기후에서도 도심의 온도가 25도를 웃도는 반면, 산의 기온은 10도 전후가 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이렇다보니 가을 산행을 만만하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치기 일쑤. 더욱이 험한 산세를 가진 산이라면 심한 체력 소진과 함께 흘린 땀으로 인해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것이 가을 산행이다. 하지만 오대산으로 떠나는 산행이라면 그리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높이에 비해 산세가 험하지 않고 평坦하며 땅 위로 드러난 바위들이 많지 않아 피로가 크지 않다. 특히 잘 닦인 도로와 쉬운 접근성으로 산행에 따른 피로감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 바로 오대산이다.

천년의 길 간직한 오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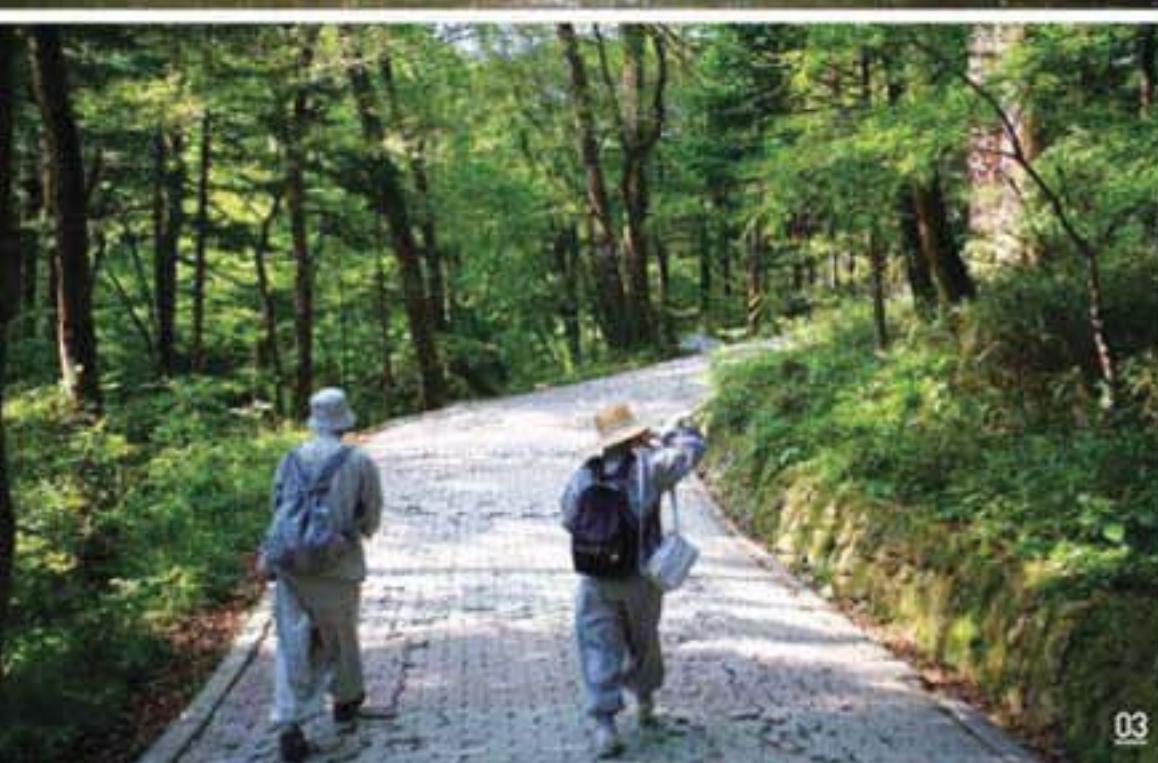
오대산에서도 단연 백미로 꼽히는 길이 소위 ‘오대산 옛길’이라 불리는 코스다. 월정사를 시작으로 상원사를 거쳐 적멸보궁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그 발길을 내주며 오대산을 지켜왔다. 특히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를 품은 중대 적멸보궁은 국내의 5대 적멸보궁 중 하나로 역사적 가치 또한 남달라 불교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곳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진 않다. 진부면 오대산 매표소를 시작으로 약 12km 가까운 산길은 가을 바람에도 땀이 흐를 정도의 고생을 하지 않으면 그 깊은 살결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지금이야 상원사까지 잘 다듬어진 도로가 생겨 고작 3km만 걸으면 비로봉까지



01



02

01 상원사로 가는 옛길에 놓여 있는 섶다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서 온 관광객들도 찾는 명소다.

02 아직 9월인데도 오대산 계곡물은 겨울처럼 차다.

03 상원사 입구까지 가는 길. 짙은 녹음이 운치있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04



05

04 상원사는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는 선원으로 수행남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05 상원사 위쪽에 위치한 적멸보궁. 수능을 앞두고 많은 부모들이 기도를 올리려 찾고 있다.
06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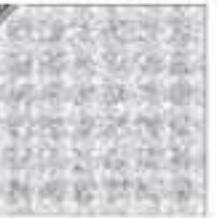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오대산을 다녀왔다’라고 말한다면 오대산이 품은 깊은 속살은 결코 느낄 수 없다.

오대산 옛길은 앞서 말했듯이 불교의 성지순례와 같은 명소들을 즐비하게 품고 있다. 천년 고찰 월정사의 입구인 일주문을 시작해 월정사 본당을 거쳐 셀다리와 동피골 야영장을 지나 상원사, 사자암, 중대 적멸보궁으로 이어지는 9km 정도의 길은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넉넉하고 2시간 반이면 등반이 가능하다. 내려오는 길은 상원사 주차장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진부 시내까지 단걸음에 이동 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일주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전나무 숲길과 셀다리는 오대산 옛길 중 단연 백미로 꼽힌다. 새벽 이슬을 잔뜩 머금은 전나무 숲 사이로 뿐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온몸을 느긋하게 만들며 삶의 앤돌핀을 마구 뽑아내게 한다.

저 멀리 보이는 새벽 산사의 어스름한 불빛 뒤에 젊은 스님의 고운 비질은 먼지 하나 날리지 않으며 등산객을 맞이한다.

전나무 숲길을 지나 상원사로 조금 더 올라가면 오래된 옛 나무 다리인 셀다리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흙과 잔가지들로 만들어진 셀다리 위를 걷노라면 호젓한 노스님이 되기도. 산사를 찾은 템플스테이 체험자가 되기도 하며 오대산의 정기를 마음껏 마시는 묘한 기운에 휩싸인다.



Tip

잊혀지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길

섶다리를 지나 조금 더 걸으면 동파골 야영장이 나타난다. 올 1월까지 만해도 이곳에서 직접 야영을 할 수 있었던 캠핑의 명소였다. 자연보호를 이유로 현재는 폐쇄된 상태지만 뒤에는 오대산이. 앞에는 맑디맑은 계곡이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은 캠핑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 충분하다.

이곳을 지나 한참을 오르면 상원사 주차장이 나타난다. 자동차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고 이곳에서 약 3km 정도 가파른 산행을 시작하면 사자암과 적멸보궁, 그리고 오대산 최고봉인 비로봉에 도착할 수 있다. 산길이 그리 험하지 않지만 짧은 구간을 높이 올라가다보니 경사가 가파르다. 쉬엄쉬엄 산행을 즐긴다면 부담 없이 정상까지 다다를 수 있다.

상원사 주차장에서 비로봉까지 오르는 잘 다음어진 산길 외에도 상원사 바로 옆길로 나있는 산길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정상까지 갈 수 있다. 이 구간은 앞서 말한 산길보다 조금 더 가파르지만 정상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많은 등산객을 피해 조금 더 호젓하게 산행을 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두자. 오대산 옛길은 현재 계곡 건너 잘 닦인 도로 덕분에 많이 잊혀졌다. 등산객의 발길 또한 뜸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 더 불편한 이 길은 오대산의 천년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 빨리 가는 것보다 때론 느리게 걷는 여유가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오대산은 이미 천년 전에 알고 있었다.



● 오대산 주변 맛집

부일식당

진부 시내에서 보기 드문 풍경, 주말이면 길게 늘어선 줄이 도대체 뭘까하는 궁금증을 만드는 부일식당은 스무 가지가 넘는 산나물과 직접 만든 두부, 생선 조림으로 산채정식을 파는 오래된 맛집이다. 기본 반찬만 먹어도 이미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게 되는 부일식당의 산채정식은 오대산을 찾은 이라면 꼭 즐겨야 할 음식이다.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74-2
전화 : 033-335-7232



집단소송의 신화로 남은〈에린 브로코비치〉 사건

싱글맘승진백서, 에린 브로코비치의 경우

싱글맘 에린 브로코비치는 우여곡절 끝에 법률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한다. 그리고 서류 정리 도중 우연히 발견한 의료기록을 통해 대기업 PG&E사의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이 회사의 공장은 인체에 유해한 크롬 성분을 십수년간 불법적으로 폐기했고, 주민들은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려왔다. 결과는? 에린은 마을 주민의 90%의 서명을 이끌어내는 데 공헌했고 법원은 PG&E사에 엄청난 배상액 지불 판결을 내린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 이 극적인 실화는 곧바로 영화화되었다.

가난한 싱글맘에게 성적 매력을 허하라

〈에린 브로코비치〉는 소도시 주민들과 굴지의 대기업과의 분쟁 실화를 다룬 영화다. 하지만 법정 영화는 아니다. 스티븐소더버그 감독은 “이 영화는 법적 소송에 관한 영화가 아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한 여자의 이야기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 실화를 기반한 이 영화의 재미는 바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전대미문의 캐릭터 자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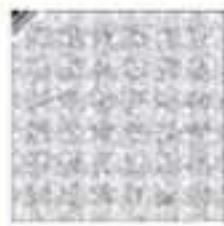
그럼 이 여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먼저, “미스 위치코타 출신”이라는 과거의 영화가 말해주듯 여성적 매력으로 무장된 미인이다. 패션은, 늘 몸에 달라붙는 상의와 짧은 치마를 고수한다. 아무리 보수적인 분위기의 일터라 해도 그녀는 자신의 쭉 뻗은 각선미를 아낌없이 드러내고 활보한다. 동료 여직원들의 ‘왕따’ 따윈 아랑곳 하지 않는다. 말이 조금 거친 구석이 있지만 사리분별에 어긋남 없고 성격도 화통하다. 이 정도면 남자들이 줄을 설만도 한데, 달린 애가 셋이요, 이혼 경력이 두 번이다. 그리고 통장 잔고는 74\$….

그래도 자신감과 당당함 하나는 일품이다.

그녀의 경쟁력과 그녀가 일하는 이유

때로 풍만한 가슴을 내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줄 아는 영리한(?) 여성, 하지만 에린 브로코비치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다. 소통 능력, 술한 자기개발서에 서 너도 나도 떠들어서 오히려 그 말의 진정한 가치가 퇴색해 버린 ‘커뮤니케이션 능력’ 말이다. 그녀의 소통 능력은 6배 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집단소송 과정에서 보석처럼 빛난다. “변호사들은 쉬운 일도 어렵게 한다”고 일침을 가하는 에린,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그녀는 “심각한 일도 가볍게 해결하는”





별종으로 보일 것이다.

영화 중반에 접어들면 이 ‘별종 싱글맘’은 어느새 근사한 새 남자 친구도 제쳐 두고 서류 뭉치 속에 파묻히는 워커홀릭으로 변신해 있다. 분유값이 절실했던 싱글맘. 그녀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오로지 돈이었다. 그러나 PG&E사 사건에 몰두하며 그녀는 돈을 넘어서는 무언가와 대면한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경험. 이는 곧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할 것이다. 그녀는 뛰어난 학식과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도서관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공감 능력과 유쾌한 낙천성을 가졌다. 그리고 풍부한 모성과 건강한 상식을 지녔다.



E r i n
B r o c k o v i c h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승리

에린 브로코비치의 경우, 상식에 따라 용감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몸값도 수백 배 올린 신화적 존재가 되었다. PG&E사에 대한 판결이 ‘정의’와 ‘평등’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회복한 상징적 판결이라면 에린은 그 사건 속의 중심역할을 하며 스스로 ‘아메리칸 드림’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건 ‘소송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이기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실제로 미국 법정 사상 거의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액인 3억 3,3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의 악의적, 비도덕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적 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개념은 ‘집단소송(Class action)’이다. 〈에린 브로코비치〉의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효과적인 소송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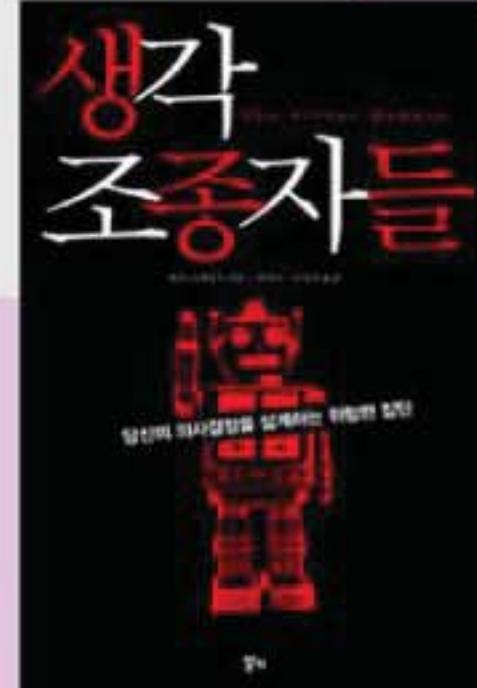
시원스러운 줄리아 로버츠의 미소처럼 언제나 현실이 산뜻할 수만은 없다. 그렇기에 국가는 부패를 엄벌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사회적 장치를 충실히 구축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의와 상식을 갖춘,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별종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나는 네가 웹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생각 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저 저음, 이현숙 · 이정태 옮김, 알키, 2011



개별화 되는 인터넷 세상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꽤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우리는 각종 정치적인 이슈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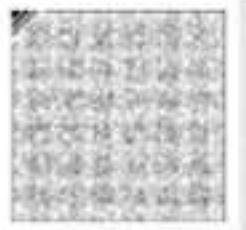
다양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를 보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버마스가 언급한 ‘민주적 공론장’의 개념은 인터넷에서 비로소 그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은 과연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무대일까? 적어도 초창기 인터넷에서는 그런 유토피아가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보의 양이 비약적으로 넘쳐나면서, 그리고 검색기술이 정교화되면서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뚜렷하다. 화살표는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다. 오늘날의 웹 정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각 개인에게 특화되어 있다. 알고리즘이 은밀하게 수행하는 필터링 작업은 결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필터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생각 조종자들〉의 저자는 모든 정보가 맞춤화되면서 점점 개별화 되는 현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거품 속에 갇힌 사람들

이 책의 원제목은 〈필터 버블〉(The Filter Bubble)이다. 필터 버블이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모든 정보가 필터링되어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을 특정한 정보의 거품 속에 가둬버리는 현상이다. 그 상징적인 출발점은 구글이었다. 구글은 2009년 12월부터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개인에게 맞춤화해서 보여주기 시작했다. 똑같은 단어라도 누가 검색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검색 엔진은 우리가 무엇을 클릭하는지 살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비단 구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대부분의 웹서비스가 맞춤형 정보를 지향하고 있다.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기업들은 취향, 관심사, 성격 등의 개인정보를 필사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개인이 흥미를 느낄 만한 정보를 ‘알아서’ 제공한다. 얼핏 보면 참 편리한 세상인 것 같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자신만의 편협한 정보 세계의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기업들은 필터 버블을 이용해 타깃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당신의 정보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열심히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평소 갖고 싶었던 상품 광고가 뜬 적 없는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당신이 평소 입력한 검색어는 고스란히 당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이것은 기업의 마케팅 자료가 된다.

‘검색’은 곧 ‘관심’의 척도다. 당신의 취향을 파악한 웹사이트는 당신이 좋아하는 정보만을 전해줄 것이다.

당신도 귀찮게 정보를 선별할 필요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허나 이것이 과연 좋은 거래일까?

우리의 정보 편식은 현재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필터 버블의 문제점

기업들의 돈벌이에 개인 정보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필터 버블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 세계에서는 개인이 통찰하면서 새롭게 배울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새로운 지식과 창의력은 낯선 정보와의 부딪침에서 비롯된다. “잘 아는 세계에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 개별화된 웹서비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석해서 오직 그것만을 보여준다.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아무리 흥미가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기사들이 존재한다. 좋아하는 것만 읽으며 대충 건너뛰더라도 최소한 어떤 기사가 있는지는 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대홍수에 대한 기사는 읽지 않더라도 최소한 파키스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도는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필터 버블에서 당신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볼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좋아하는 문제들에 손쉽게 묻혀버린다. 개인들의 정보는 개별화되는 반면, 모든 정보가 기업이나 국가로 집중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화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

당신의 행동반경을 넓혀라

필터 버블을 두려워해서 아예 모든 기술과 담을 쌓을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든 기술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결국 문제는 기술 속에 삶을 담느냐, 삶 속에 기술을 담느냐다. 때문에 우리는 “기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기술이 좋아질수록 기술이 우리의 주목을 어디로 끌어가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개인이 해야 할 일, 기업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적한다. 개인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선 행동반경을 넓히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향된 정보를 가진 비만인들이다. 건강한 정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먹을 것을 제공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의 웹서핑은 대부분 평소에 늘 가던 사이트에 한정된다. 이런 순환 고리를 끊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당신의 다양한 관심사는 개별화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결국 웹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지속시키는 길은 당신의 용기에 달려 있다.

권익위, 위원회 운영 철학 공유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9월 2일(금)과 3일(토)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홍천 소재 대명비발디에서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위원회 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반부패 선도 기관으로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는 한편, 직원 간 단결과 조직의 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이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400여 명은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 서약을 하였으며,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및 한비야 국제긴급구호 활동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공익신고 자보호법」소개 등 각 실국 주제별 발표와 함께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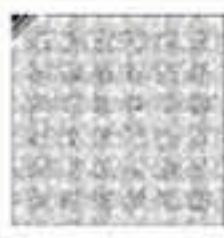


권익위, 영등포 쪽방촌 민생 현장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은 9월 6일 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해당 세대는 8월 쪽방촌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주민들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방문 당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주택건축민원과)는 2010년도부터 쪽방촌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안정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쪽방촌 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위원회가 참여한 정부합동 TF(국토해양부·위원회·복지부·행안부·고용노동부 등)는 7월 8일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로 쪽방 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쪽방촌 거주민 등 사회적 약자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1년도 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협의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9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 계동 현대빌딩에서 '2011년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974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는 전 공공기관에 청탁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또한 본 협의회를 통해 집단부패문화 근절을 위해 하반기 현안과제로 ▲청탁 등록 시스템 구축·운영, ▲감독기관과 산하기관 간 관행적 비리 근절, ▲부패위험(Red Zone) 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목금 연찬회, 감독기관·산하기관 간 관행적 비리 등 최근 발생하는 공직사회 부패는 집단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집단적 부패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 때문이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각급 공공기관에서 집단부패문화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위, 국민신문고 방글라데시어 전용 민원창구 개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9월 23일부터 온라인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방글라데시어(벵골어) 민원 창구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실시했다. 접수는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방글라데시 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방글라데시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방글라데시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제공된다. 이번 방글라데시어 민원창구 서비스 개시로 1,200명의 방글라데시 한인교포와 국내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 13,000여 명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에서는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민원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네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10월 31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부패방지 만큼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노력을 부패방지법을 통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을 보면서 청렴한 나라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우리 스스로가 떳떳한 국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효정(강원도 강릉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파워 블로거가 추천한 제품은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 블로거들이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게 되면 당연히 업체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겠지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도 중요할 것입니다.

선예은(전라남도 곡성군)

월드뱅크에서 북아프리카 정국 혼란의 원인을 정부와 국가간 소통 부재로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를 선정했다니, 정말 기쁘네요. 우리 권익위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세상을 위해 힘 써 주세요.

이영호(경기도 평택시)

고통을 공감하도록 설계된 공동체적 존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동안 경쟁과 승부 속에서 살면서 공감본능을 잊고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반성하게 됐어요. 공감이 사라지면 사회가 제대로 지탱될 수 없다는 점을 저의 지인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부탁드려요!

서건희(전남 여수시)

지난호 정답



틀린그림찾기

사진에서 달라진 부분 5곳을 찾아 독자엽서에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틀린그림찾기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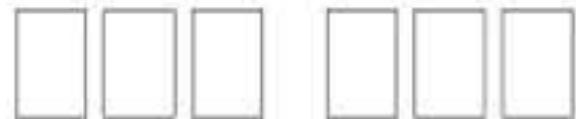


독자소리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1 2 0 - 7 0 5



09+10 2011 vol. 22

'국민권익'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입니다.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독자들과 함께 하는 '국민권익'이 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 격려, 충고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는 더 나은 '국민권익'지를 만드는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②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③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④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acrc.go.kr

독자열서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소식지 제작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성명 :

구독희망주소 :

E-mail 주소 :

(E-mail 주소를 적으신 분은 자동으로 정책고객으로 등록되며, 권익위 소식, 웹진 등을 보내드립니다.)





4대강새물결

남한강 자전거길

1,692km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이 있는 나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어디를 가도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라



서울 한강과 여주 이포보를 연결하는 27km의 남한강 자전거길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른다

NAVER + Mobile

4대강



4대강 새물결맞이, 10월 22일 오후 1시

한강 이포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사전행사

(13:00~16:00)

- 수변에서 즐기는 카약, 카누 체험
-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산책
- 새롭게 변한 4대강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 사라졌던 강놀이 복원의 체험
- 4대강 물길따라 거리예술

식전행사

(17:00~18:00)

- 우리고향 대표예술단체 공연
- 경기예총에서 만드는 특별공연 - 한강의 물결
- 인기가수 축하공연
- 창작 뮤지컬 공연

본행사

(18:00~19:00)

- 강과 산, 사람이 하나되어 펼쳐지는 대지예술과 멀티미디어쇼
- 대한민국 최초 전국 1,700명의 대합창 생중계
- 금난새가 지휘하는 유라시안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Government Call Cente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정부대표민원전화

|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